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너희도 서로
남의 방을
씻기 위하여 한다.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12주 】 인도 1부 : 이재훈 목사
(2부 선찬양: 330. 어둔 밤 쉬 되리니) 2부 : 이재훈 목사

- 전 주 반주자
- 임재의 기원 626.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x3) 다 함께
- 예배로의 부름 김재홍 목사
- ▲ 경배의 찬송 23.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계절의 변화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시원한 바람이 축 쳐져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생기 있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성실한 일꾼 되게 도와주십시오. 지구 곳곳에서 급격한 기후 변화와 이상기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 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와주시고, 다른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우리의 삶부터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다시 주님의 꿈을 심어 주십시오. 주님께서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서두르지는 말되, 끈기와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도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찬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시 94:18~19 인도자
- ▲ 교 독 문 35. 시편 84편 다 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 2부** 대표기도 김영호 장로
- 2부** 응 답 송 찬양대
- 2부** 찬 양 427. 맘 가난한 사람 다 함께
- ▲ 성경봉독 마 10:7~8 1부:인도자/2부:추현영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 독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 께

찬 양	I. 성도의 삶	마중물 찬양대
	II. 오 신실하신 주	청과 찬양대
말 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김재홍 목사
거둠 기도		다 함께
2부 찬 양	은혜	박승은 (반주: 이건희)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김재홍 목사
공동체 소식		김재홍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 유인답게 사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에서 먼 시대이며 그 책임은 우리 인간에게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릇된 삶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들 곁에 다가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주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생각하며 지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잊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기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주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재홍 목사

다음주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이범석
2부	김기석	조항범	김해선	김재홍

 청과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ungpachurch/>

 청과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실황 -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예배실황' 클릭

 청과교회 카카오톡 채널 : 친구검색창에 '청과교회' 검색 후 채널 추가

※ 헌금계좌 : 새마을금고 9002-1751-3375-3 (예금주 : 청과교회)

